

## 勸 学 篇

朱子曰、勿謂今日不學而有來日 勿謂今年不學而有來年。日月逝矣 歲不我延 嗚呼老矣是誰之愆。

⇒주자가 말하기를, 오늘 배우지 않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 것이며, 올해 배우지 않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날과 달은 흘러가서 세월은 나를 위하여 더디 가지 않는다. 아! 벌써 늙었구나. 이것은 누구의 허물인고.

⇒朱子が言うのに今日学ばなくても明日があると言わないこと、今年学ばなくても来年があると言わないこと。日と月は流れて歳月は私のために遅く行かない。兎！もう老けたな。これは誰の過ちなのだ。

少年 易老 學難成 一寸光陰 不可輕。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 已秋聲。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촌음(寸陰)이라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아직 못가의 봄꿈을 깨지 못해서 섬돌 앞의 오동나무가 가을소리를 낸다.

⇒少年は老けやすくて学問は成しにくいから寸陰でも軽くしてはいけない。まだ湖辺の春夢より起きることができなくて踏み石の前の桐が秋音を出す。

陶淵明詩云、盛年 不重來 一日 難再晨 及時當勉勵。歲月 不待人。

⇒도연명 시(詩)에 말하기를, 좋은 나이는 두 번 거듭 오지 아니하고, 하루에 새벽이 두 번 있지 않다. 때가 되거든 마땅히 학문에 힘쓰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陶淵明の詩に言うのに良い年は二度重ねて来なくて、一日の夜明けは二度ない。時になったら適切に学問に力をつくしなさい。歲月は人を待たない。

荀子曰、不積跬步 無以至千里 不積小流 無以成江河。

⇒순자가 말하기를, 반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요, 작은 흐름을 모으지 않으면 강하(江河)를 이루지 못한다.

⇒荀子が言うのに半分の歩みを積まなければ千里に至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であり、小さな流れを集めなければ江河を成すことができない。